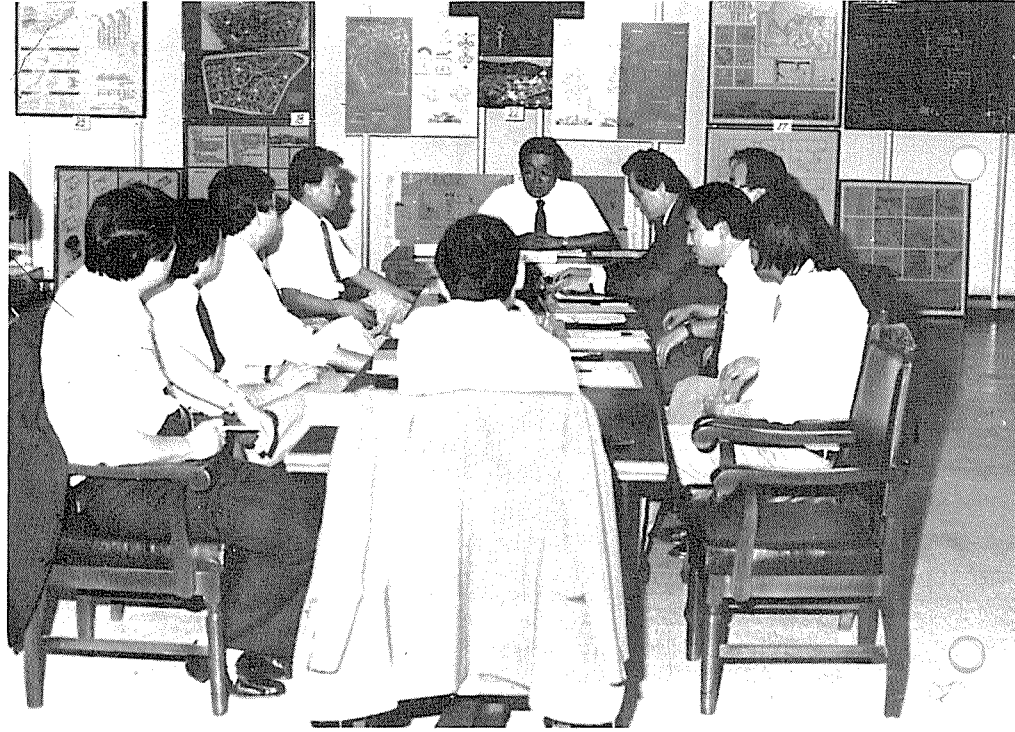


# 신인 · 학생 건축설계 작품전 심사를 마치고



심사광경

### 공모시기를 적절히 조절...

김진균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전국각지에서 학생들이 응모한 많은 수의 작품을 대하고, 그 우열을 가리기에 앞서 학생각자가 작품을 만드느라고 쏟은 열성과 노고를 치하한다. 얼마나 많은 여름밤을 땀으로 지새웠을까... 근년에 와서 이와 비슷한 공모전이 눈에 띄게 잦아졌으나 모두 비슷한 시기로 그 마감일을 잡음으로써 응모자 측으로는 어떤 전시회에 출품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에도 망설임이 있었을 것이며, 주최측으로 봐서도 표(?)가 걸리는 난점을 겪는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인지상정으로 상금이 많은 쪽을 택하는것 아니냐? 土協會는 나름대로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다 하면 그만 이겠지만 우리의 건축계라는 대국적인 입장에서 볼때, 공모시기는 적절히 조절되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

다음으로 느끼는 점으로는 우수작 선정의 범위와 기준을 다양하게 하여야 하지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주는사람이나 받는사람이 상의 의미를 확실히 새길 수 있을것 같다.

아카데미상에서의 극부분, 비극부분별로 각기 작품상, 미술상, 감독상 등을 나누듯이 이와 적지않은 수의 상을 낼 바에야 건축에서도 주거부분, 문화시설부분, 에너지부분 등에다 아이디어상, 주제상, 도면효과상 등으로 나눌 수도 있겠다. 그래야만 학생들이 작품의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시사성같은걸로 눈치(?)살필 필요도 없게 하고, 현란한 색채나 시적인 구호로 도면을 호도함으로써 자기를 주장하는 열기를 갈아 앓힐 수 있겠으며, 심사하는 측에서도 많은 좋은 작품을 보고도 동시에 금을 줄수 없어 '아깝다. 아깝다.'로 양심의 가책(?)을 달래는 고행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금, 은을 못받았다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의 출품전은 100m달리기 운동회가 아니다. 일등과 이등이 따로 없을 뿐더러 더더구나 학생전은 경쟁보다는 서로가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알아보고 나의 생각을 떳떳히 발표해보는, 그러한중에 서로 사귀는 젊은이들만의 대화의 광장으로서의 의미가 더 클 것이다. 한편 주최측으로는 내년 출품된 작품들은 한편의 견실한 책으로 묶어 후대로 하여금 앞선 세대의 학생때 생각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을 정착시켜 나아가야 한줄로 믿는다.

## 인간화의 방향으로 노력을...

김진일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올안에서 벗어난 야생마처럼 넓은광야, 높은 창공에서 방향감각이나 고도감각에 당혹하면서도 생각을 멀리, 그리고 높게 펼쳐보았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건축학도에게 올해부터 해마다 이러한 설계경기의 「판」을 제공한다하니 이렇듯 고마운 일이 또 있겠는가.

학생들은 시공을 초월한 고분군, 천·지·인, Woman plaza 등 다양한 작품 주제로서 기성건축인들의 오랜 체중을 발산시켜 주었다. 그러나 복지사회 시설의 주제가 주종을 이루니 역사를 통해서 배양되어온 문화적 지혜와 감각, 논리적인 구축능력이나 상상력이 질서를 유지 발전 시키려는 도덕적, 논리적인 강한 역제를 또한 보여주었다.

인간이 사물을 감수한다는 일을 「본다」로 규정짓는다면, 많이 보는일과 잘 보는일,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서 체계화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일상생활 주변의 훌륭한 관찰자를 회화의 세계에서 더 많이 발견하는데 그들은 생활의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사물을 파악하여 화폭에 담고 있다. 더러는 묘사적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범위를 넘어 선과 색조의 조형적 결합을 추구하면서 소재에 접근하려고 하니 이는 건축에서도 매우 교시적인 것이다.

우리는 근대를 높은 대가를 치루고 서양에서 수입하여 왔다. 그것은 학문과 기술이었으나, 교활과 고도의 사기술도 문혀 들어왔다. 이러한 근대에 대한 학도들의 예리한 관찰에서 이미 화석화되어가려는 자생의 근대와 전승되어 온 근대를 재인식하려는 시도가 작품명칭에서 주장되고 있다. 서양의 근대는 한 인간의 인격, 인간 그 자체를 몇개의 독립된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하므로, 그 인간의 전인격의 긍정과는 이어지지 않는다. 반면, 우리의 전승된 근대나 자생의 근대는 한 인간의 존재를 몇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보기 보다는 전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습성이 있다. 따라서 다분히 복합된 근대의 배경을 갖는 주관적인 이번의 작품들이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였다.

어느 작품에서나 경지의 초입에서 주저하면서도 획일적인 것에서 개성적인 것으로, 장치화된 것에서 인간화의 방향으로의 공통적인 노력이 보였다. 또 개중에는 역사의 한 사건이나 시점을 응축하여 이를 조형화시켜 기념비적으로 표출하려는가하면, 현대가 추구하는 합리적인 구조나 미뿐 아니라醜(Ugly)와 혼돈(Chaos)마저도 건축영역으로 확대하려는 무모함과 대담성도 있었는데 이것이 젊은이의 특권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혼돈의 예로서 「다세대 주택과 3세대 주택」이라는 주제가 있었다. 서양적 근대의 주거양식인 아파트먼트나 연립주택의 생활감각이 건축적으로 우리에게 정착되기에는 일천한 이때에, 다세대 주택에 이어 「3세대 주택」의 출품은 놀라운 일이다.

학생들의 출품작의 작업이 한창일 때, 바로 위의 「3세대 주택」에 관한 심포지움이 열렸으니 모주최측의 의도가 학생에 침투된 것이니 이것도 성공으로 봐야 할까 신문에 의하면 3세대 주택에는 저소득층 저리용자, 세금감면, 단지내 일정 비율건축의무화, 경우에 따라서는 표준설계도 보급할 기세인 듯하다.

이처럼 주택시장에 새 상품을 제공하려한다면 건축은 그 자체가 하나의 언어이기에 상품개발에는 어휘의 (3세대와 3世帶)혼선이 없기를 바란다. 연립, 다세대, 3세대 주택은 3쌍둥이나, 3형제이냐고 되묻는 소리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과도적인 주택이라고 평가되기 쉽다.

입선에 끼이지 못한 작품중에도 매우 애석한 것이 적지 않았음을 추구하고 싶다.

## 그 누가 그의 세계로

## 갈 수 있을까...

이강식

이도무·원 종합건축사사무소

첫회에 출품수로 보아서 93점이란 많은 작품을 보고 양에 놀랐고 작품의 화려함에 놀랐다.

출품작 모두를 입선전시하여도 하나도 나무랄 데 없는 작품들이었다고 본다. 전시장의 제한으로 당락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괴로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각 개인이 그 무더운 여름방학도 잊어버리고 특출나게 기량을 발휘한 땀의 결정을 이기시야 총회에 맞추어 동행하여야 할 학생을 선임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연 삼일간을 심사하여야 하는 고충을 가졌다.

두달여에 걸쳐 만든 작품을 몇시간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 아쉬운감을 갖게 한다. 한 작품 한 작품을 대할때마다 바다 위에 뜬 어름덩어리 같이 일부만을 보는 것같이 미안한 감을 갖으며 학생들의 특출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학생작품 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한껏 내뿜어 펼쳐보는 작품, 한편으로는 자기 주위 환경에서 자기 나름대로 개선 보완하기 위한 작품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전자에서는 한껏 부푸른 꿈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한낱 꿈으로써 사라지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즉 표현부족으로 실을 찾지 못한 경우이며 후자는 너무 실리를 추구하여 꿈의 결핍으로 졸렬성을 갖게 하는 작품이 되기 쉽다.

이 두가지에 얼마만큼 조화시키느냐에 따라 좋은 작품으로 평가받게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학생이므로 경험이 많지 못한 학생으로서의 특유한 작품 내지는 신선함을 갖는 학생다운 작품을 바란다. 이는 기성인들에 주어지는 법규의 제약, 대지의 제약, 건축주에 의한 규모 제약 및 조건의 제약 등 모든 제약에서 벗어난 작품을 말한다.

작품은 제약과정 및 환경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며 세대에 따라 또는 보는 이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 하지만 한 눈으로 보아 너무나 시대적 조류에 민감하게 Post Modernism에 끌려든 듯한 작품들이 많았다고 생각된다. 어떤

조류에 휩쓸리지 않은 작품이 아니다. 작품의 경험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경험과 너무 많은 경험으로 인하여 작품으로서 보다는 실리주의에 빠지게 하는 수도 있으며 경험에 따라 가치기준도 다르게 느껴지는 수도 있다. 이와같이 경험도 우리에게 양면성을 갖게한다. 경험에 따른 완속함보다는 자기 꿈을 펼 수 있는 경험을 아쉬워한다. 작품이란 논리와 이론만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경험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표현기술만으로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자기 민족으로서만 이루어진 작품도 아니다. 일반이 공통으로 느낄 수 있는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35작품을 입선 선정함에는 심사위원들이 거의 일치로 보았지만 상 선정에서는 많은 논란으로 인사동에 가면과 Art Complex와 대결 or 아이디어면에서 Art Complex가 우위를 차지하였으며 표현의 기법에서는 인사동에 가면이 탁월했다고 본다.

동사무소와 마을회관은 참신한 작품으로 좋은 작품이었지만 장려상에 그치게됨을 아쉬워하며 한정된 상을 수를 더 늘려서라도 상을 주었으면 하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이었다.

전반적으로 한껏 욕심을 부렸지만 끝마무리에서 제대로 맞추지 못하였던것 같이 느끼며 명년에는 더욱 발전된 작품들이 속출되리라 기대해 본다. 금번 공모는 최초로 많은 수의 출품은 우리건축계에 큰 수확이라 생각하며 작품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달라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향후공모시테마

금번 공모에서는 주제가 주어지지 않아 너무 방대한 넓이의 작품으로 내실을 기할 수 없었던 것 같다. 매년 행사로 실시한다 하니 더욱 바랄나위 없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매년 3가지 정도의 주제를 설정하여 출품학생이 선정하여 작품 할 수 있는 여건과 이를 토대로 각 주제별로 설계에서의 토대로 정리되어 갔으면 한다.

기타

학생들의 작품활동 및 사기 앙양에 큰 도움이 되게 작품을 소개하게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건축사협회에 감사하며 학생들은 젊음을 불사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한다. 작품을 하여 본 학생과 하여 보지 못한 학생과는 경험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앞날에도 기회갖게 한다.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를 잡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모든 작품의 세계가 그러하듯이 스스로가 생각하며 표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몇날 몇일을 머리에 담아 고심하다 해결점을 찾았을 때의 희열, 그 누가 가져다줄 수 없는 기쁨이다. 이는 그 누가 침범할 수 없는 자아의 세계이며 작품을 하여 본 사람만의 특권이다. 많은 학생들에게 이 세계로 초대하며 기대하여 본다. 올림픽의 100m 터 선수가 몇초를 뛰기 위하여 몇년을 연습하였던가. 하지만 목에 금메달을 단 순간 그 희열은 그 자신만의 것일것이다. 그 누가 그의 세계로 갈 수 있을까?

**지방작품수준이 매우 높다.**

이경희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이번 학생작품공모전은 무엇보다도 건축교육면에서 볼때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고 본다. 미래이나마 건축문화창달의 역군이 될 건축학도들의 작품활동을 진작시키고 창작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건축작품에 대한 시계를 넓힐 수 있는 의욕적인 기회라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

작품응모기간이 짧은데 비해 전국적으로 30개 대학에서 93개의 많은 작품이 출품되었고 서울이 지방 15개교로 공모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어느때보다도 높은것을 알 수 있다. 작품내용과 수준면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향상되었고 특히 지방의 건축학생 작품수준이 매우 높은것을 알 수 있었다. 장려상을 수상한 작품들은 모두가 작품내용이 특색이 있고 표현력 구상력이 뛰어난 작품들로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 입선작품중에서 작품수준이 밀도가 높고 착상이 훌륭한 작품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한편 작품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몇가지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보면 첫째 작품의 표현에 너무 치중하다보니 설계과정을 건축적언어로 전개시키는 수법이 부족하였고 작품내용보다는 표현에 집착한 작품이 많았다. 둘째로 주제도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주제의 특성이 결여된 점, 도면처리의 짜임새가 부족한 작품들도 많았다.

향후 공모시 테마와 제출도면 규격을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발표한다면 작품의 수준과 내용이 크게 향상될 뿐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가 용이하고 동일 주제에 대한 다양한 작품표현방법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가령 동일한 대지조건 및 설계조건을 제시하고 그대안제시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또는 몇개의 건물유형별로 주제를 제시하는 방법, 특정 설계계약조건 (예 에너지문제, 자연채광문제 등)을 제시하는 방안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공모방안이라고 본다.

이러한 공모전을 통하여 학생작품의 수준과 경향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 스스로 각종작품의 기법을 배울 수 있을뿐 아니라 한편 건축설계교육에 대한 정보입수의 좋은 기회가 되므로써 우리나라 건축교육 전반에 걸쳐 지대한 발전이 기대된다.

또한 기성건축가들에게 젊은세대들의 참신한 작품세계를 알 수 있으므로서 창작내역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이사업을 매년 연례사업으로서 계속 발전시켜 나아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깊은 작품성과 예술성을..**

이문우  
본협회 설계감리분과위원장

우선 전국적으로 93점이라는 많은 응모가 있었읍니다. 응모하여 주신 학교 및 학생에 대하여 본 작품전을 주무한 설계감리분과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전시회도 참관하여보고 85년도 건축대전 등을 참작하여 보아 전체적으로 작품수준의 질이 높았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었읍니다. 특히 여름방학동안에 열심히 작품을 구상하고 만드느라고 애쓴 흔적이 보여 한편으로는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제품작품들의 주제 선정, 의지의 표현,

계획방법, 접근방법, 표현방법과 기법 등도 순수한 학생수준을 넘지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뜻과 의지를 너무 넓게 잡아 소화하는데 문제점이 있는것도 있었읍니다.

본인 개인적으로 볼때 아쉬웠던 점은 학생작품으로서의 순수성, 소박성, 깊이있는 작품성 및 예술성 등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즉 단일건물(또는 복합건물)로서 심도깊게 계획표현하여 깊은 작품성과 예술성을 바라보았읍니다.

아직도 거리감은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좋은 작품이 많았으며 특히 충남지역의 목원대학에서 제출한 “동사무소와 마을회관”등이 학생작품으로서는 잘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앞으로 작품공모의 방향은 매년 4월에

공고하여 8월 말일정도 마감할 예정이고 작품에 대한 테마를 부여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후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여 훌륭한 인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대학 교수님들의 지원과 성원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인부문



한것 보다는 완전 한것이 좋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인을 위한 행사이므로 도법상의 부족함이 좀 있어도 큰 문제는 아니며 작품 내용을 충분히 설명 할수 있고 신인다운 표현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보조사들의 수준향상의 계기로

이영일

본협회이사 심사위원장

바쁘신 중에도 신인전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신인전은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직장에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의 입장으로 바쁘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작품활동을 통하여 건축계에 참여하려는 의욕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희 협회로서는 이번이 제 1회 신인전이었고 아직 건축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감도 있어서 작품의 수와 수준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처음 시도한 것이라 앞으로 회수를 거듭할 수록 더욱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대학에 재학시절 건축을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에는 작품에 대한 의욕과 장래의 큰 꿈을 안고 노력하였으나, 졸업 후 현실사회에서 선배 건축가의 구조도나 시공도를 작도(作圖)하다보면 젊은 시절에 키워야 할 작품에 대한 훈련이 소홀히 되기 쉽겠으나 설계사무소에서의 작업을 작품에 대한 훈련과 내용있는 실습과정으로 승화시켜 학생전보다는 보다 차원이 높은 신인으로서의 의욕적인 작품을 기대하여 봅니다.

## 신인다운 표현기법 개발을...

김인석

종합건축사사무소 일진

건축사 협회가 주최한 제 1회 신인 및 학생 현상 설계 공모 행사중 신인 작품의 심사에 참여하게 되어 느낀바 몇가지를 기술코저 합니다.

금년은 제 1회 행사이기 때문에 응모 작품의 수나 작품의 수준이 그리 높다고 할수는 없으나 앞으로 해를 거듭하는 동안 작품의 응모수도 많아지고 작품의 내용도 좋아 질것으로 확신 합니다.

첫째로 응모지는 작품 제목을 결정하는 데 신중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람자나 심사자에게 처음 눈길을 끄는 것은 작품 내용 보다는 작품 제목 인것입니다. 작품의 제목을 보고 난다음 작품 내용으로 들어갔을 경우 제목과는 너무 내용이 다르거나 추상적인 제목이

되어서는 곤란하며 실망까지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인 작품이니까 좀 이상적인 작품명이 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전혀 관련성이 없거나 회박한것은 삼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가장 중요한 작품의 내용인 것입니다.

응모지의 자격이 대학원 재학생, 대졸 설계사무소 직원이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 작품 보다는 다소 현실적이어야 겠으며 신인 작품인 만큼 미래 지향적인 내용이 좋을것 같습니다.

너무 현실에 맞추다 보면 아무리 작품 내용이 좋아도 신인으로서 신선함과 새로운 자기 VISION을 주기 어려운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작품의 표현기법입니다. 작품의 표현기법은 응모자의 경력이나 취향에 따라서 다양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을 아는 사람에게는 첫눈에 응모지의 도면 표현을 보고 그사람의 경력이나 신분 까지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부족

지난 몇년간 설계보다는 건설현장으로 젊고 장래가 촉망되는 건축인들이 모이는 경향이었으나 다행히 최근 들어서 설계사무소 등에 대학이나 대학원 출신 등 고학력자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서 건축계의 장래를 밝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신인전을 개최하기 시작한 저희 협회는 회원사무소에서 신입(新入) 보조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신인전이 더욱 발전하고 신입보조사들이 작품활동을 통하여 건축하는 보람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건축계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취지가 신인전을 갖게 된 동기라고 보고 싶고 보조사들의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협회에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시상제도의 확대 발전 등 개선점을 찾아서 신인들의 참여의 장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테마전으로 시행이 바람직...

이영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이번 제 1회 대한건축사협회 신인 공모 작품전에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받고 심사장에 들어서기까지는 나름대로 상당한 기대를 가졌으나 막상 전시장을 한바퀴 돌아본후 습할한 느낌을 금치 못하였다. 양적으로도 27점에 지나지 않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별 건축으로서의 창의적인 조형언어를 다듬는데는 심혈을 기울인 많은 흔적이 보이나, 건축, 그 장소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환경과 연계하여 건축을 풀어 나가는 강한 의지가 담긴 작품은 거의 찾아볼수 없었기에 못내 아쉬웠다.

이번 공모전이 신인 공모전인데 신인이란 범주를 어디서 어디까지로 경계할수 있는지는 조금 막연하지만 주최측에서는 대학원 재학생을 그 하한선으로 정의하였다. 여하튼 신인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는 건축창작 활동에 상당한 참여 경력을 보유한 자로 정의함에는 큰 무리가 없을진데, 작품을 읽는 시각도 학생작품과는 구분되어야겠다는 것이 처음부터 생각이였다. 강한 Image

drawing 속에 꿈이깃든 낭만과 문제를 제기하고 그 가능성을 찾는데 높은 평점을 주는것이 학생작품이라면, 신인의 경우에는 건축적 질서가 정돈되고 논리적 설명이 수반되어 누가보아도 쉽게 읽을수있는 도면이어야 한다는것이 나 개인적 생각이다. 표현기법에대한 기교의양·부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출품 작품중에 몇개는 건축작품도면인지 이미지 드로-잉인지 읽기가 무척 힘들었고, 건축내지 환경의 여러Factor를 도식화하여 나열만 해놓았지 해결의 의지가 전달이 안되는 작품도 몇개 있었다고 지적할수 있다. -「House with two Doors」, 「제 3의 공간」, 「고궁 전이공간」, 「Complex Building」, 「Mobility House」 등의 작품이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나 생각한다.

금상이 수상된 「PLAZA OF ART」는 테마선정이나 환경설정에는 무척 안이한 처리였으나, 소규모 개별건축으로서의 조형어휘가 높게 평가되었다고 보며, 은상의 「충혼」은 기념성 건축물로서 그곳을 찾는자와 무언의 대화를 나눌수 있는 친근감과 세련된 창작의지가 수렴된 건축언어를 읽을수 있었기에 무척 공감이 갔다. 동상의 「DREAM WORLD」는 기성작가가 크라이언트와 수차례의 씨름끝에 최선을 다하여 빚어놓은 작품과 같은 인상을 받았으나 세심하고 합리적인 노력이 평가되었다고 본다.

이번이 제 1회인 만큼 내년에는 보다더 의욕적인 작품이 출품되리라 믿으며 건축대전 등을 고려하여 내년 부터는 테마전으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고운 때를 벗지못한 아쉬움

이용하

건축사사무소 신건축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살려 심사에 임했으나 심사기준 설정이 어려운 문제였으며 또 작품자체도 학창시절 작품의 고운때를 벗지못한 좀 아쉬운 감이 있었다.

○ 향후 공모시 테마의 제시여부 테마를 제시하면 심사의 편이성은 있겠으나 작품의 다양성이 결여될 것이다.

### ○ 기타의견

심사를 끝내고 느낀점은 신인작품의 대부분이 대학원생들의 작품이었으며 설계사무소에 종사하는 신인들의 작품이 적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있을 현상에는 설계사무소에 종사하는 신인들의 더많은 출품이 기대되며 이것이 우리 건축사의 참 작품 생활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믿어진다.

### 제도적 보완을...

장석용

아도무·완 종합건축사사무소

우리 주변에는 여러 형태의 건축전람회가 있어 신인들의 등용문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추세라 생각된다. 학교 재학생전람회며 졸업하기위한 과제로서의 졸업설계전시회며 가장 역사를 오래한 국전이 민전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건축대전”이 해를 거듭하여 금년으로 5년에 이르고 통산 40여회로서 창작성이 뚜렷하고 작가의 학력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는것이 특징으로 오늘에 이르렀고, 건축전문지인 건축문화에서 “건축문화 학생상”제도가 금년으로 2회에 접어들며 일정한 테마(금년에는 주거)를 부여했고 전문학교 대학교, 대학원학생에 한하여 출품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이토록 관계단체 등에서도 각기 고유한 기능과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음에 비하여 우리 사협회에서도 협회의 고유한 업무 등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취지에서 좀더 치밀하고 발전적인 작품성격의 제안이 있도록 하면 더좋은 내용의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본다.

또한 그림이나 조각을 작가 마음대로 표현하고 마저도 작품성이 인정받고 상품화되는데 비하여 건축작품을 제작한다는 것은 그이상의 노력과 제작비가 투입되므로 본협회에서 주관하는 전람회에서는 심사를 엄격히 하여 입선작 이상에게는 제작비의 일부라도 지원하도록 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의욕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큰상 수상자는 건축사시험

응시시 설계과목 등을 면제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고려하여 명실상부 한국의 최고 권위있는 전람회로 발전되기를 바란다.

\* \* \*

신인전의 작품심사 소감으로 동상의 "DREAM WORLD"는 작품명과 내용이 걸맞지 않고 창작적인 건축의 의미는 부족하나 실무를 익히기 시작한 신인작으로서 의도한 Detail을 소화하려는 의도가 다른 작품에 비하여 높이 평가되었고, 은상의 "충혼(국립묘지 관련시설)"은 출품자리 작품성격을 충분히 이해하여 작품의 PROCESS며 PRESENTATION이 매우 성숙된 능력으로 평가되나 좀더 발전적인면이 었보였더라면 더욱 좋았으리라 생각된다. 금상의 "창작세계 PLAZA OF ART"는 건축적의미는 부족하나 의도한 작품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열심히 완성하려는 의욕이 신인작으로 높이 평가됐다.

### 알맹이 없는 형태적인 면에 치중...

한중언

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

건축시험회최 신인작품전의 27개 출품작을 심사하면서 특별한 점은 눈에 띄지않았다. 아마 이번이 첫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대부분의 작품전이 가을로 되어있어서 출품자들이 분산된 듯하다. -건축대전, 공간사작품전, 사협회학생작품전 그리고 각대학졸업작품준비 등- 또한 신인작품전에 출품하는 자격에도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것 같다. 대상이 대학원생과 건축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보조원으로 참가자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점이다. 위와 같은 여건으로 작품수 27점이 적은듯 싶었고 또한 질적인 면에서도 본인의 수차작품심사 경험에 비추어 더 향상된 점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단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정리가 덜되어 좋은 결과는 갖지못하였지만 두작품이 리노베이션을 주제로 하였는데 작품의 방향이 다양해졌다는 것을 느낀다. 작품전에 대한 공통적인 느낌은 알맹이 없는 형태적인 면에 치중하였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이 점 다음 출품자를 위해서 일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해가 거듭할수록 괄목할 성장이 있으리라 기대된다. 우리 협회에서도 다소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꾸준히 발전시킨다면 사협회의 신인작품전이 우리나라 어느 작품전보다 훌륭한 행사가 되리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1회 작품전이었다고 본다.

◎건설부령제411호

##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6. 10. 30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반월 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이하 "시화지구"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제3호중 "이를 위한 토석의 채취"를 "이를 위한 토석의 채취와, 시화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인접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석의 채취"로 하고, 동조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산업 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다)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17.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분묘를 철거하고 그에 따른 개장을 위하여 공설묘지를 설치 하는 경우에 그 설치(분묘의 설치기준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법률"에 의한다)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

## 질 의 회 신

###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에 관한 질의회신

질의 :

공동주택의 단지내에 설치할 공동저수시설등의 생활용수 확보에 관한 질의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에 있어 동사업계획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때 간선시설인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는 100호 이상 집단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 설치를 못할때에는 당해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을 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수도시설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준공시까지 설치하여야 할것임.
2. 다만, 상수도공급 예정구역내에서 100호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년차적인 상수도 설치계획에 의하여 수도물 공급이 장차 가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수 설치와 병행하여 공동주택

단지내의 생활용수(음용수등)로 상시 계속 공급할 수 있게 하거나, 독자적인 지하수 개발로 양수시설을 하여 수도법, 음용수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에 적합한 양호한 수질이고, 그 채수량등도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용수로 사용하기에 충분하여 안정공급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 경우 지하수 개발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등의 구조안전과 장차 건설계획에 따른 지하양수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3. 참고로 공동주택 대지내에서 지하수 개발이 입주민에게 음용수등 생활용수를 상시 계속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시설의 설치허가 여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